

## 목포시내버스 또 멈추나...대표 “6월 말 이후 사업 접겠다”

“누적되는 적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어” 목포시에 통보  
 목포시 “멈춰선 안된다, 용역 앞당기고 방안 모색하겠다”

목포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가 시내버스 사업포기를 공식화하면서 목포시내버스가 또 다시 멈춰선 위기에 놓였다. 16일 목포시와 태원·유진운수에 따르면 최근 이 대표가 목포시와 시의회에 “오는 6월말까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사업을 접겠다”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가 또 다시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목포시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그 동안 “목포시의 재정지원 등에서 불구하고 매년 30~4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차량할부금과 금융권 부채 등에 대해서는 개인 부동산 등을 처분해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만간 시내버스 사업포기를 공식화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사업포기 통보에 목포시는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면서 “진의 파악과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이 대표가 6월 이후 시내버스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구두로 밝혀왔다”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대표에게 연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7~8월까지로 예정된 시내버스 노

선개편과 공영제·준공영제 등 운영방식에 대한 용역도 6월까지 한달가량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시내버스를 시에서 인수 등을 위해서는 협상과 평가, 시의회 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면서 “멈출 경우 회사 측에도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느긋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시내버스 휴업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노선권을 반납하는 등 경제적 손해가 많은

만큼 그만두지는 못할 것이다. 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영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지역의 원로로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목포시내버스는 지난해 10월 18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노조의 파업으로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1달여 만인 11월 16일 운행이 재개됐다. 하지만 시내버스 연료비 23억 여원을 채납하면서 목포도시가스 측에서 가스공급을 중단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또 다시 65일간 멈춰서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아픈 교훈 잊지 말자” 세월호 선체 보전·추모 사업 본궤도

참사 9주기를 맞은 세월호 선체를 영구 보전하고 추모·기억·안전 교육 등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1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남 목포신항만에 6년째 임시 거치 중인 세월호 선체를 보전, 추모·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건립을 추진 중이다.

둘 트랜스포터가 다시 동원될 예정이다. 선체를 안정적으로 거치하면서 부식 방지 등 영구 보전 작업이 진행된다. 동시에 추모·기억·교육·체험 전시관 등 복합시설로 꾸려진 부속 건축물 신축 공사가 진행된다. 해수부는 선체 내부에도 추모관,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 위치서 1.7km 떨어진 항만배후부지로 옮겨 선체 영구 보전  
 팽목항 주변엔 ‘국민해양안전관’ 준공... 올 10월 중 개관 예정

현재 거치 장소로부터 1.7km 가량 떨어진 목포 고탄도 신항만 배후부지(해상 매립 예정지)로 옮긴 뒤 주변 해양안전 관련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도출할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 이행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올해 9월 나온다. 사업은 오는 2025년 발주·착공하며 전체 공사기간은 4년이다. 우선 갯벌 등 공유수면을 매우고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부지 기반 조성부터 한다. 2027년 하반기 중에는 세월호 선체를 부지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된다. 임시 거치 당시 선체 이동에 쓰였던 특수운송장비 ‘모

참사 당시 유해 수습 장소였던 진도 팽목항과 500여m 떨어진 서망 해변 인근 야산(임회면 진도항길 161)에 들어선 국민해양안전관은 개관이 임박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지하 1층·지상 2층, 4463㎡ 규모로 지어졌다. 실내는 선박 탈출·선박 경사·이안류 등 특화 체험 프로그램 13종을 운용할 시설이 들어선다. 또 야외 1947㎡ 규모의 해양안전정원에는 세월호 참사 장소를 향해 거대 조형물(높이 12.5m)이 들어선다. 참사에 따른 슬픔·고통을 상징하며 희생자 추모 의미가 담겼다.

최이슬기자



세월호 9주기 추모 발길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내 세월호 거치 장소 앞에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전남 영암·장흥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두 농장 약 3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군과 장흥군에 있는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10월 17일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75번째 확진 사례다. 영암군과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각각 1만4000마리, 1만5000마

리를 사육 중이었다. 농식품부는 전남 두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동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이어 역학조사와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했다. 가금농장 관계자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거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에 있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제25회

# 함평나비대축제

2023. 4. 28. (금) - 5. 07. (일) 10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  
 뚝.뚝.뚝 나비야 일어나! 봄이야!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EX 한국도로공사    KORAIL 한국철도공사